

현장 목소리에서 국제문화교류 정책 발전방안 찾는다

-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논의 위한 연속 간담회 개최
- 3. 29.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방안과 정부 역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9일(금),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의 개선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본부장,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문화 국제개발협력 확대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 강화

문체부는 캄보디아 예술교육원 건립('22~'25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23~'27년), 몽골 공공도서관 조성('23~'25년) 등 국제개발협력(ODA) 수원국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국제개발협력(ODA)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에 맞는 국제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 전반의 국제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지원 강화 방안 모색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화),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케이-컬처 전반의 국제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 교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초부터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미디어, 홍보 등 유관 기관 관계자, 학계·민간 전문가들과 30여 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번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그간 간담회에서는 ▲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외 한국

문화원의 역할 및 유관기관 협업방안, ▲ 한류 콘텐츠의 수출 및 신규 시장 확대 방안,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 국가 이미지 홍보 전략 및 해외 미디어 홍보 확대 방안, ▲ 국제 동향 분석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현장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업구조 구축 추진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기업,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도 논의를 지속해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국제문화교류 협업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의견과 정책 방안들을 종합해 국제문화 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많은 예술가와 단체, 기업들이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한국이 ‘문화’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3311)
		담당자	사무관	김영조 (044-203-3312)

